

국 문 초 록

라틴아메리카 사회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전통적인 사실주의를 거부하는 글쓰기 경향은 소위 “봄세대” 작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 특징은 “봄세대”의 문학적 성취가 라틴아메리카의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글쓰기 양식이라거나 유럽의 초현실주의 기법을 답습했다는 식의 극단적인 평가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와 같은 평가를 견지한 상황에서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는 동시대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1969년 『이스파노아메리카 신소설(La nueva novela hispanoamericana)』을 출판한다. 푸엔테스는 이 책에서 “봄세대”의 특징을 “새로운 언어(Nuevo lenguaj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들의 작품을 “이스파노아메리카 신소설”이라 명명한다. 그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타문화권의 소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을 재현하는 데 적합한 특수성이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멋진 신세계. 이스파노아메리카 소설에서의 서사시, 유토피아, 신화(Valiente mundo nuevo. Épica, utopía y mito en la novela hispanoamericana)』, 『라틴아메리카의 위대한 소설(La gran novela latinoamericana)』 등은 『이스파노아메리카 신소설』의 논의를 발전시켜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의의를 설명하려는 작품이다. 작가는 이 에세이집들에서 소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시간과 언어를 꼽고 있다. 푸엔테스의 시학에서 시간과 언어는 두 가지 층위의 의미를 갖는데, 첫째로 이들은 줄거리 구조와 사건의 배열을 통해 소설의 재현대상이 된다. 푸엔테스는 “이스파노아메리카 신소설”이 순차적(직선적)인 구조와 신화적 시간(동시성)의 가변적인 배열을 통해 시간을 재현한다고 분석한다. 둘째로 이들은 소설의 재현과 현실에 대한 기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푸엔테스는 “새로운 언어” 개념이 폴 리콰르가 주장한 “담화(discurso)의 언어학”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리콰르는 인간이 텍스트가 펼치는 “세계-내-존재”의 구조를 전유하고 이를 통해 “세계-내-존재”에 대한 더 넓은 인식지평을 획득한다고 역설한다. 이와 같은 리콰르의 이론을 바탕으로 푸엔테스는 “이스파노아메리카 신소설”이 담

화의 구조와 시간의 다양한 양태를 재현하고 독자는 소설을 통해 이를 “전유”한다고 분석한다. 결국 독서는 이러한 “전유”과정을 통해 “유럽중심주의”와 “실증주의”에 의해 은폐된 진정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력을 제공한다.

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으로 푸엔테스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스파노아메리카 신소설”은 언어를 의미(sentido)와 사건(acontecimiento), 시간 인식을 “가로방향의 지향성(intencionalidad transversal)”과 “세로방향의 지향성(intencionalidad longitudinal)”의 등근원적(co-original)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소설의 역할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는 문명과 야만, 보편성과 특수성, 주체와 객체를 이분하는 사고체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스파노아메리카 신소설』이 “봄세대”의 특징을 “새로운 언어”로 분석하고 거기에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려 했다면, 이후의 작품들은 논의의 배경을 넓혀 ‘신대륙 발견’ 이후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흐름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내려 한다. 먼저 『멋진 신세계』는 유토피아에 대한 욕망과 이러한 욕망의 좌절로 인해 탄생한 “신세계”의 정체성에 대한 열망을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기원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유럽의 라틴아메리카 ‘발견’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과 “봄세대”의 특징을 유기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위대한 소설』은 유럽 르네상스가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과 소설에 끼친 영향을 전작보다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포스트 봄(post-Boom)”, “크랙(Crack)” 등 “봄세대” 이후의 문학흐름까지 아우른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스파노아메리카 신소설』과 이후의 두 작품이 전개하는 논의의 중심은 “봄세대”이다. 세 작품 모두 “봄세대”의 특징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문학사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후 세대 역시 소설의 소명과 언어관을 “봄세대”로부터 이어받았다고 진단한다. 결국 푸엔테스가 자신의 시학을 통해 일관되게 제시하는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의의와 특징은 시간과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독자가 감춰진 현실을 깨닫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시간은 직선적이지 않다”거나 “기억과 욕망은 현재에 있다”는 명제를

완전히 “전유(appropriación)”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푸엔테스의 말처럼, 끊임없는 창작과 독서를 통한 지평의 확장을 통해서만 다가가 수 있는 작업이다. 굳이 서양철학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맥락과 “붐소설”의 예를 통해 시간과 언어에 대한 인식을 실재현실에 대한 기여와 등근원적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푸엔테스의 시학은 새로운 ‘보편성’을 제시한다. 푸엔테스는 폭넓은 주제와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끊임없이 출판하여 독자에게 “해석의 순환”을 권유하고 자신의 주창하는 소설의 소명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주요어: 카를로스 푸엔테스, 시간, 현실재현, 새로운 언어, 해석학